

‘학비없어 학업중단’ 이젠 옛말

인천교육청, 중·고등학생 약 36,360명 282억 원 학비감면 혜택

인천시교육청은 16일 “2010학년도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약 15.9%인 36,36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2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비감면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와 직장건강보험료 월 49,00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월 51,000원(4인 기준)이하

납부자, 실직·파산·이혼·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의 자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문계고는 현원의 15%이내, 전문계고는 30%이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6천원 증액했고 위기가정의 소득

을 12만 원이 인상된 19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33,259명보다 약9.3% 증가한 36,360여명에게 33억 원 증액된 282억 원(13.4%증가)이 지원되어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5.9%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비 감면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3월초에 제출하면 해

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주며, 학기 중이라도 대상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i@eduyonhap.com



◆경북 예천 상리초등학교 졸업식이 지난 18일 열렸다.

인천가좌고
체대입시반
대학입시 전원 합격
인하대학교 무더기 합격



◆인천가좌고 체육대학 입시반 학생들이 전원 합격하는 기쁨을 세웠다.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경북 예천 상리초, 나홀로 졸업식

예천의 산골 소규모학교인 상리초등학교(교장 권세창)에서는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6학년 1명의 나홀로 졸업식이 진행됐다.

이번 제70회 졸업식은 6년 전 1명이 졸업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졸업식으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좀더 뜻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는 졸업식장과 다르게 단상 위에는 졸업생과 부모님, 담임 선생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연회장처럼 준비된 테이블에 둘러앉아 다과를 먹으며 편안하게 식을 함께했다.

부모님께 보내는 졸업생 ‘영

상 편지’는 부모님의 눈시울을 적시게 해 가슴 따뜻한 광경 연출했으며 학교장의 회고사와 함께 지난 6년 동안의 학교생활 모습을 영상물로 보여 아름다운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재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석한 이들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던 권세창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졸업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졸업식 풍토를 조성해 상리의 전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좌고등학교(교장 박재빈)는 2009년도에 운영된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체대입시반 16명의 학생 전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100% 합격 및 총 38개 대학 지원에 31개 대학 합격, 합격률 81.5%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으며 수시정형을 포함하여 모두 41개 대학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인하대학교에는 8명의 학생이 무더기로 합격을 하였고, 그 중 5명은 체육교육과 진학에 성공, 합격생수 전국 1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외에도 한국교원대(3-6, 전지나), 숙명여대(3-10, 임보라), 중앙대(3-1, 김한재), 성결대(3-10, 박영은 외 1명), 경북대(3-3, 박희민 외 1명) 등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등 전국 유수의 대학 입학학생들을 배출했다.

특히 국립대학교이자 송도캠퍼스로 이전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인천대학교에는 5명이 지원하여 5명 모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가좌고등학교 체대입시반 권태원 지도 교사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학교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교사가 꿈인 전지나 학생(교원대)은 “학원에 가지 않고 고교 가좌고의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꼭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우리 신나게 놀아요!”

학생교육문화회관, 해군홍보단 초청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은 2월 기획공연으로 오는 26일 오후 7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싸리재홀)에서 해군홍보단 초청 공연을 준비했다.

해군홍보단은 1969년 9월 5일 창단돼 ‘낙동방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위문공연, 의료진료, 방역, 가전제품 수리, 일손돕기, 이발, 위문품전달 등의 임무를 시작했다. 현재 양로원 및 고아원 등의 시설을 꾸준히 방문해 불우한 우리 이웃들의 벗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부대 위문공연을 비롯한

각종 대회 행사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천지역의 동구, 중구 지역아동센터 학생 등 화업 등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노크를 했다.

특히 이번공연에서 ‘웃찾사’ 개그맨들의 공연 이외에 마술, 노래, 레크리에이션, 사물놀이 등 버라이어티한 공연을 접하게 되어 관객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공연 이외에 다음달 3월 20일 눈높이공연 ‘팜페라콘서트’와 3월 26일, 27일 경기도립극단이 공연



‘M.C.’

웃찾사 출신 개그맨



하는 ‘전무송이 해설하는 한국문학’을 준비하고 있다.

입장료는 학생 및 일반 무료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iecs.go.kr)에서 인터넷

예약 가능하며 잔여석 및 현장잔여분에 한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배부한다.

문의 : (032) 760-3455

간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색깔 고운 밥상에서 건강도 곱게 지켜요”

경남 위성초등학교 자색고구마밥 시식회 가져



◆경남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웰빙식품인 자색고구마밥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스턴트 식품이 늘어나면서 비만은 물론 각종 성인병이 아이들에게도 찾아오고 있다.

다시 한 번 식단 영양 밸런스를 체크해 봐

야 할 요즘 웰빙이 트렌드가 되면서 눈 코 입이 즐겁고 건강에도 좋은 컬러 푸드가 유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위성초등학교(교장 조은환) 급식소에서는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색고구마밥 시식회를 가지고 매 식단마다 다양한 종류의 밥을 메뉴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전교생 급식식단에 자색고구마를 잘게 썰어 넣은 밥을 제공한 결과 저학년 학생들은 평소에 하얀 쌀밥에 잡곡이 들어간 것을 먹는데 자색고구마밥은 꺼려하지 않고 잘 먹은 뿐만 아니라 빛깔이 예뻐 맛있어 보인다는 반응이었다.

고학년 학생들은 밤이나 콩, 현미 등이 섞인 밥도 영양이 많아서 좋지만 자색 고구마가 섞인 밥은 고구마가 부드러워 입속에서 잘 걸리지 않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색고구마는 함양군의 특화작물로서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 물질인 안토시아닌 색소 다량함유하고 있고, 동맥경화, 암예방, 간질환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초등학교 급식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학생들의 영양 많은 먹을거리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서부교육청, ‘독서·논술 지도자 심화과정’ 개강

인천서부교육청은 지난 17일 관내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학부모 교육 ‘독서·논술 지도자 심화 과정’ 개강식을 서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독서·논술 지도자 심화 과정은 자녀의 도서 선정, 읽기방법 지도, 글쓰기 지도, 독서토의 등을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독서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식에서 서부교육청은 “독서·논술 지도자 심화과정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학부모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본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부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건전한

고 바랍직한 교육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게 하는 학부모의 교육 능력을 배양시키는 등 학부모 지원센터로서의 구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은경(43세, 검암중 학부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의 독서 및 글쓰기 지도에 활용하고, 독서 지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키워 학교 도서실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독서·논술 지도자 심화 과정은 2월 17일부터 3월12일까지 총 30시간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서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수료식은 3월12일 가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2010 KIECO는 한국 최초로 민간합작투자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제 KIECO는 Clean Energy의 새로운 77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실현

하는데 기여할 나여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KIECO는 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KIECO를 지켜주세요.

KIECO

한국종합에너지서비스

주요사업: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관리, 에너지 서비스

주요 고객: 정부, 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외국기업

주요 실적: 2009년 매출 77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